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닳고 싶은 사람

삶의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요
평소 존경하거나,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닳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봅니다.

1_ 내가 닳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2_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교회행사

10월

26,28일 성례 교육
29-11/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하나복DNA네트워크
김형국 목사
“교회를 꿈꾼다”

11월

1,4일 성례교육
5일 성례식
12일 성찬식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25일 결혼예비학교 시작

경배 찬양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소식

1. 성례식

성례식 (11월 5일) 준비를 위해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2. 모집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을 모집합니다. 2024년 2월17일(토) ~ 23일(금)까지이며,
10월 28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 이학엽 강도사 010-6730-7517)

3. 도즈 시역

굿월센터 도즈 수업을 함께하실 보조 교사가 필요합니다.

모집 : 커피반, 토핑반, 피아노반, 프리토킹반

역할 : 유학생케어, 운전, 간식 도우미 등 (문의 : 김성희 권사 010-6620-8748)

선교

[최미희 선교사]

콩고민주공화국

1. 각 처소에서 시작될 클럽 전도현장
기운데 역사하시도록
2. 사역 위해 필요한 것들 채워지고,
섬기는 이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찰스 스펀전 (1834-1892)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목사

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베엘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열왕기상 13장 32절)

솔로몬의 범죄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 지역으로 가서, 성전에 모이면 마음이 떠날까 염려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단과 베엘에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선포한 선지자 (유다에서 올라온) 역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봅시다.

1_하나님의 사람의 사 (20-32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엘의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유다의 선지자를 속여 떡과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엘의 선지자에게 임하여 길에서 죽게될 것을 예언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위한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삶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날마다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나눔] 본문을 읽으며 들었던 솔직한 생각이 나누어봅시다.
[질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2_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20-32절)

이 내용들은 인간의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조금은 고민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행하셨는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행동과 삶에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 - 떡과 물을 마시러 가자고 했을 때에, **이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베엘의 선지자가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마땅한 태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베엘의 선지자 - 말씀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를 선지자의 목숨을 담보로 물을 일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 **직접 묻고 구하며 나아감**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사자가 나타나 유다 선지자를 길에서 죽였습니다. (왕상 13:26) 여로보암에 대한 선포는 훗날 요시아 왕이 나타나, 산당을 헐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움으로서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왕하 23:15-16)

[나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진정한 소망과 경교가 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_여로보암의 죄와 멸망 예고 (33-34절)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의 심각성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경고하셨고 (2절) 심판의 징조와 손의 회복이라는 표적도 주셨습니다.(3절) 나아가 심판 경고한 자가 불순종하여 심판 받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33절) 이는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그를 향한 심판은 이뤄집니다.

[나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함정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 무더짐, 교만, 방심, 합리화, 타협, 미루기

[나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돌아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